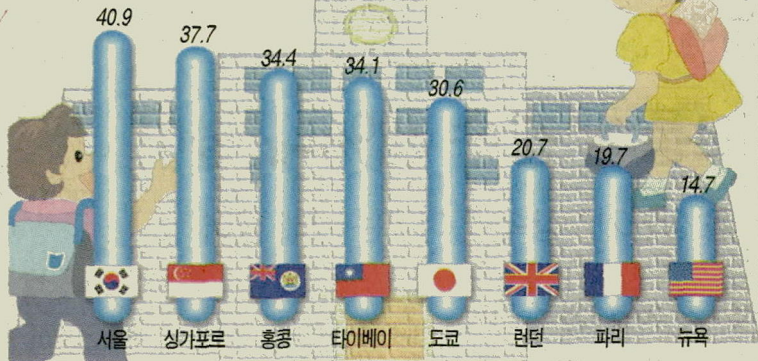


세계 주요도시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단위:명)



서울 '삶의 질' 세계7대시 중 하위

교사·의사·공원면적등 열악

서울시가 파리 싱가포르 도쿄 등 세계 주요 도시의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의사 1명당 인구수, 공원면적 등 '삶의 질' 면에서 크게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시가 뉴욕·도쿄 등 세계 주요도시와 서울시의 인구·문화지표를 비교 분석한 '95년 도시비교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초등학교 1학급당 학생수는 40.9명으로 런던(20.7명) 도쿄(30.6명) 뉴욕(14.7명) 파리(19.7명) 등에 비해 크게 처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 1명당 인구수도 서울은 5백70명으로서 도시국가인 홍콩(6백43명)과 싱가포르(5백78명)보다는 다소 나은 형편이지만 파리(1백10명), 뉴욕(2백22명), 도쿄(2백75명), 타이베이(3백6명)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공원면적은 5.67㎡로 뉴욕 14.5㎡, 파리 12.7㎡에 비해 처지고 타이베이(3.4㎡) 등보다는 넓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북한산과 관악산 등을 포함한 것이어서 실제 도심속의 공원면적은 큰 격차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영미 기자